

오네시모 선교회

NEWSLETTER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1 (714)739-9100

Non-Profit ID No. 95-4667736 | 501 C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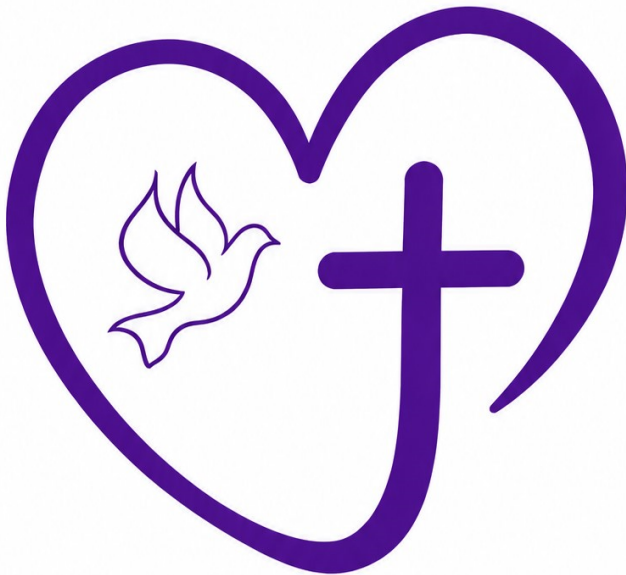
여름호 2026

Volume 5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
하여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
한 자였으나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
니다.”
(빌레몬서 1:10-11)

오네시모 선교교회 재출범!

**ONESIMUS
MISSION CHURCH**



Encounter Christ

Belong

Live with Purpose

Ephesians 2:19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발견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가정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 주시는 가운데,
오네시모 선교회는 2026년 5월 17일 오네시모 선교교회
재출범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출범은 우리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이정표입
니다. 오네시모 선교교회는 개인과 가정, 출소자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만나
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발견하며,
새롭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우
리는 이 교회가 상한 삶이 회복되고, 소망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영적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적 가르침, 제자훈련,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 오네시모 선교교회는 교도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
장되는 오네시모 선교회의 마음과 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누구도 혼자 걷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소중히
여겨지는 공동체입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 요한계시록 3장 8절

오네시모 선교교회

그리스도를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발견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 가정

데릭 임 목사님의 인사말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6)

아름다운 봄을 뒤로하고 따뜻한 여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그리고 국가 간의 긴장이 끊임없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종말의 징조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합, 은혜와 소망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열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네시모 선교회는 2026년 5월 17일 오네시모 선교교회의 재출범을 감사함으로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개인과 가정, 출소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오네시모 선교교회가 상한 삶이 회복되고, 소망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영적 보급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적 가르침, 제자훈련,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 선교교회 앞에 이러한 열린 문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이 문을 함께 통과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세계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개인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참됩니다.

이 여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소망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임태우 목사 (Derek Yim)
오네시모 선교회 대표 및 목사
오네시모 선교교회

Onesimus NEWS



오네시모 선교교회



오네시모 선교교회 재출범!
2026년 5월 17일, 오네시모 선교교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2:00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며,
목적 있는 삶을 발견하십시오!
교회를 찾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exico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와 감옥

지난 4월, 살리나스 주립 교도소
(Salinas State Prison)에서 형제님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렸습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6월과 7월에
여름 심방(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exico

멕시코 산 루이스 리오 콜로라도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오네시모 후원회 및 자원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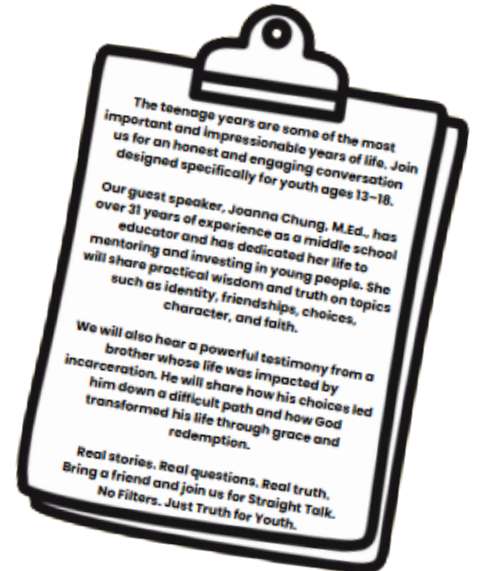


오네시모 후원회는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대규모 의류 기부 캠페인 (Clothing Drive)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 대의 트럭을 가득 채울 만큼 의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네시모 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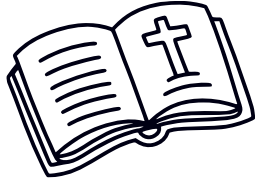
오는 6월 27일, 오네시모 선교회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Straight Talk: No Filters, Just Truth for Youth」 (청소년을 위한 솔직한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 행사를 개최합니다.
교육학 석사(M.Ed.)인 정조안나 선생님께서 정체성, 선택, 인격, 그리고 신앙에 관한 실제적이고 유익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수감 생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된 한 형제의 감동적인 간증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건강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자녀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네시모 신학교



오네시모 신학교(OST)의 학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H. Z. 형제와 D. B. 형제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네시모 신학교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성경 공부가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SERMON

PASTOR DEREK YIM

분별력 키우기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속히 구원하여 내 노를 시삭의 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리라.”
- 역대하 12:7-8

분별함을 배우기

여러분은 혹시 힘든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무시되고, 가르침은 잊혀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경험이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거부했던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유다는 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보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게 되자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읍들은 함락되고 두려움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번영이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을 고난이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결과를 즉시 없애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시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왕들의 지배 아래에서는 압제와 무거운 짐, 그리고 종살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 돈, 권력, 쾌락, 자기중심적인 삶을 좇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묶어 두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순종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SERMON

(CONTINUE)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 권력과 쾌락, 그리고 자기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는 가혹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결국 불안과 실망, 그리고 속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와 용서, 평안과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한 관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유다 백성이 배웠던 것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가진 한계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세상적인 추구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마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원래 젊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새로운 은혜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종종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을 섬기는 삶의 차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길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의 명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의롭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차이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이며, 짐이 아니라 축복이며, 손해가 아니라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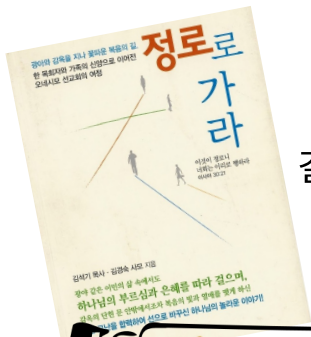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도로 가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여정
저자: 김석기 목사 · 김경숙 사모



감사의 글

김석기 목사님과 김경숙 사모님께서 최근
『정도로 가라 (This Is the Way)』
를 출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발자취를 담은
이 책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전해 줄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감동적인 책의 제1부
서두를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을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었던
한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중한 사역 동역자이신 시드(Sid)의
어머니입니다.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아들을 잃은
후에도, 그녀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다른 젊은 생명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공허이
되었고, 그 공허는 행동이 되었으며, 그 사랑은 결국 이 책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페이지들 속에
한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서 문

눈물로 피워낸 믿음의 고백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저녁, 기도하던 중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밤 꿈속에서 한 가지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계속 머물며 나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극적인 결심이나 거창한 서원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크고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질문처럼 끊임없이 나를 부르며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길이 이미 조금씩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길이 시작된 이후, 내가 걸어온 세월의 기록입니다.

사역이 있기 전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기 전에 여전히 길을 찾고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강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강함의 순간에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병과 혼란, 그리고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도 몰랐던 수많은 물음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야기에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통해,

한 편의 꿈을 통해,

그리고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섬김의 삶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삶이 하나님께 다시 발견되어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3)

무엇을 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님은 6남매 중 막내로, 제일 큰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

어릴 적 가끔 안국동에 사시는 큰집에 가면, 안방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기도 시간이 되면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그저 눈만 감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 그것이 나의 첫 예배였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2~3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대입 준비로 인해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되었다. 그 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집안이었다. 남편의 건강 문제와 시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하여 하루에 100번씩 절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음 날은 몸살이 나서 앓아누워야 했다. 그렇게 거의 1년을 다녔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당시 남편의 건강도 안 좋았는데 나아지지 않았고, 내 안에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이나 평안함도 전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그 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성경이 읽고 싶어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공부할 때는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남편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창세기 말씀 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과정은 곧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믿음이 부족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그의 믿음은 자라났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걸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게 하셨다. 우리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우상, 환경, 화려함, 사치, 교만, 재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불러내셨다. 그 과정에서 막막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환경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갈등,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떼섬, 외로움, 자존심의 상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게 하셨다. 그때마다 조금씩 보여주시는 은혜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보게 하셨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어느 날 저녁 기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무엇을 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밤 꿈속에서 신명기 6장 4~5절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말씀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25장 34~40절의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 후 하나님은 남편을 교회 사역이 아닌 감옥 사역으로 부르셨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게 하셨으며, 그들의 사연과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 기도하게 하셨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가 성경공부를 하겠다며 교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또는 복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자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린도전서 15:10)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나의 소원은 단 하나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두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다.

신앙 생활의 시작

나는 중·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다. 교회 청년 성가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 집사님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새벽송을 돌곤 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해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기도에 힘썼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준비로 조금씩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고, 점점 교회와 멀어졌다. 결국 나중에는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 후 결혼을 했다. 남편의 집안 역시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철저한 불교 가정이었다. 믿음이 없던 친정어머니도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가문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다.

결혼 후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지내던 중,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남편은 직장에서 업무상 사람을 자주 만나야 했고, 바이어들을 상대하며 늘 술자리에 시달렸다. 어떤 날은 술이 채 깨기도 전에 출근했고, 또 어떤 날은 늦게까지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몸이 버틸 리 없었다. 남편은 점점 피곤해하며 힘들어했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 예감대로 간에 문제가 있었다. 진단은 간염과 지방간이었다. 의사는 당장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의 성격상 일을 쉬는 것은 불가능했다. 업무 특성상 휴식이 쉽지 않았고, 결국 진단을 받고도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나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양대학교병원 내과 과장이 남편의 주치의였는데, 상의 끝에 한 달에 일주일은 병원에 입원시켜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다.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아니면 나와 헤어지겠어요?”

마지못해 남편은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병실에 전화기를 두지 않게 했고, 입원 기간 동안은 회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병원에서 주는 약과 식사, 치료 프로그램에만 전념하게 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혼자 병실에 있을 남편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병원을 찾았다. 저녁에는 아이들 때문에 돌아왔지만, 입원 기간 동안은 매일 그렇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병실에 없었다. 찾아보니 공중전화 박스에서 동전을 한 움큼 쥐고 회사에 전화를 걸며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회사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병실 전화를 치웠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몰래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낸 후, 남편은 조금 좋아져 술을 끊겠다고 의사와 약속했고, 입원 치료를 그만두었다.

그 후 나는 간에 좋다는 약을 닥치는 대로 구해 먹었다. 굴뚝이, 돌미나리, 개소주, 한약 등을 다려 마호병에 담아 운전기사에게 매일 보내곤 했다.

돌미나리는 경동시장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강원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 돌미나리를 캐서 가져오는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서 한 자루를 전부 사겠다고 하고, 약속까지 했다.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드려 넉넉히 드렸다. 돌미나리를 가져와 일주일 치 즙을 내어 남편에게 먹였다. 주서기에 갈면 효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작은 돌절구에 빵아 약수건에 싸서 짜냈다. 몇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 양손에 굳은살이 잡혔다.

그 즈음, 인천에 계신 시어머님이 오셔서 남편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불공을 드리러 절에 다니라고 하셨다. 매년 1월 초에는 한강에 방생도 하라고 하셨다. 나는 경기도에 있는 절을 정해 한 달에 한 번 불공을 드렸고, 매번 백 번씩 절하며 남편의 건강을 기원했다. 동대문시장에서 거북이를 사서 한강에 풀어주는 방생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불안하기만 했다.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절에 다녀온 후,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제가 믿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내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었고, 나는 그 십자가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의문이 들었다. ‘어제 절에 가서 정성껏 백 번 절을 했는데, 왜 부처님이 아닌 십자가가 나타난 걸까? 나는 지금까지 엉뚱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제 꿈에서 마귀를 쫓았다면, 오늘 남편의 건강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남편은 늘 오후만 되면 뒷머리가 아파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귀가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아빠를 보고 기뻐하며 재잘거렸다.

식사 후,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머리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그때야 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어... 그러고 보니 오늘은 머리가 안 아팠네. 정말 안 아팠어.”

나는 말했다.

“어제 절에 다녀와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들고 마귀를 쫓았어요. 여보, 나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 당신부터 나가 봐.”

그 주일부터 나는 사촌 친정오빠가 담임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다. 결혼식 때 지인이 선물로 주었던 성경책이 생각났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몰랐다. 집 천장 위 다락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성경책을 발견했다. 먼지를 닦으니 새 책처럼 깨끗해졌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읽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어린 시절漠然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간절히 말씀을 읽으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 내려갔다. 옆에 누워 있는 남편에게도 말씀을 읽어주었고, 남편은 “더 읽어봐”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겼고 남편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다니며 교회 프로그램을 즐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남편은 “나중에 알게 되시면 그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시든 받아들이고 싶었다.

시어머님의 개종

남편의 집안은 모두 불교 집안이었다. 작은 시아버님이 경영하시는 부산의 T그룹 공장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가을 고사를 지냈다. 한 해 동안 사업이 무사히 잘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서울에 있는 조계종의 큰스님을 모셔와 고사를 지내고, 공장의 전 직원들에게 고사떡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이며 큰 잔치 아닌 잔치를 열었다.

새해가 되면 시어머님, 작은집 시어머님, 시고모님이 절에 가서서 한 해 무사함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적을 써 오셔서 집집마다 나누어 주셨다. 아들 생일이면 새벽같이 절에 가서 생일 불공을 드리고, 출근 전까지 오셔서 불공 드린 떡을 입에 넣어 주고 가시곤 했다. 이렇게 철저한 불교 가정인 시댁이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집에 오셨다. 식사 대접을 정성껏 해 드리고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범도 같이 교회 나가요.”

시어머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잠시 말을 잊지 못하셨다. 내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러다 말씀하셨다.

“얘야,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하고 뒤집힌다던데 그러면 어쩌려고 그랬냐?”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그 무렵 회사가 정부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리고 남편 몸도 좋아질 거예요.”

시어머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너희가 큰아들이면 절대 안 되지만, 제사를 모실 것도 아니니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러나 걱정이 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때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몇 달 후 시어머님이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셨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남편이 물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말했다.

“그래, 내가 네 속옷을 가지러 왔다. 그걸 가지고 굿을 하면 네 몸이 낫는다고 해서 날을 잡아왔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남편과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 전도사님에게서 심방 전화가 왔다. 남편이 어머님이 안 계신 곳에서 작은 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설명하자, 전도사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절대로 속옷을 드리면 안 됩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님께 말했다.

“엄마, 아들 생각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불공을 드리려는 마음은 너무 고맙고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건 괜히 돈만 버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크게 노하시며 말했다.

“너희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속옷 하나 달라는데 그걸 못 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핵 돌아가 버리셨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우리 부부에게 노여움을 품으시고 병이 나셨다.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누워만 계셨고, “내가 죽어도 오지도 말고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곧 여기저기 시누이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식사를 전혀 안 하셔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신다는 것이다. 80이신 어머님이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겠냐며 나를 나무랐다.

나는 두려웠다. 시댁 식구들의 말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우리 구역 구역장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시작됐다.

그러던 며칠 후, 시아버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오셨다가 우리 집에 들르셨다. 아버님을 뵈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시집와서 어머니 말씀대로 절에 다니고 방생도 했지만, 남편의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님 사랑 못지않게 저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다. 내가 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보마.”

이틀 후 주일 예배 중에도 나는 말씀 하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믿는다고 하다 부모님을 잃으면,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울며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 저녁, 인천에서 시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가, 너희 엄마가 교회 나간단다.”

할렐루야!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한참을 울었다.

아버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하신 모양이었다. 처음엔 화가 나셨겠지만, 늦게 얻은 막내아들을 향한 사랑과, 평생 믿어온 종교를 버리는 결단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싸움이 있으셨을까.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구역장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목사님과 전도사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천 시댁으로 향했다. 큰 글씨 성경책 하나를 준비해 갔다.

도착해 안방 문을 열자,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그때서야 보내드린 링거를 맞고 계셨다. 모두 인사를 드린 후, 목사님이 잠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고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라 눈물이 쏟아졌다. 구역 식구들도 함께 울었다.

그런데 어머니 머리맡에는 성당 성경책과 묵주가 놓여 있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작은 형님이 성당을 다니셨는데, 어머니의 반대로 못 나가다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시자 자기 성경책을 가져다 드린 모양이었다. 이후로 형님은 어머니를 성당에 모시고 다니셨다.

그 후로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은 시누이들이 모두 권사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약해졌고, 협심증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셔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아버님과 작은 형님께 말씀드려 한 달간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 드리며 돌봤다.

“어머니, 몸이 힘들실 땐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그러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남편이 주기도문을 크게 써서 벽에 붙여드렸다.

“엄마, 이걸 보고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그 후로 어머니는 숨이 차면 주기도문을 읊조리셨다.

나는 시댁에 심방 오셨던 목사님께 연락드려, 어머니 세례를 부탁드렸다. 목사님은 기쁘게 오셔서 세례 예식을 해 주셨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며칠 후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감사가 눈물이 되어 흘렀다.

지금도 그 말씀을 떠올릴 때면,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처럼 나의 신앙 여정은 한 여인의 작은 간증에서 시작되어, 가정의 변화를 지나 마침내 사명의 길로 확장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고, 감옥의 문 앞에 세우셨으며, 그 길에서 눈물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빚어 내셨다.

돌아보니, 고난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였다. 결국 주님은 우리 가족을 정로(正路)의 길 위에 굳게 세우셨고, 그 길 끝에서 오네시모 선교회의 사명을 열매 맺게 하셨다.

“정도로 가라. 이는 선한 길이니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그 정로 위에 있었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그 길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기도가 결국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by: P. Park



먼저, 지금부터 쓰려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거나 특별히 위대한 삶의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인생의 정점에 이르지도 못했고, 어떤 초월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이야기가 과거의 나처럼 의미 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려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이 글을 쓰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나를 아껴 주시는 김석기 목사님의 권유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희생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며 유가족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희생자의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아드님 대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제가 관 속에 누워 있고 아드님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무력하고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이 말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매일 밤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만큼이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삶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나를 혼내시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업에서 화학공학자로 근무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으며, 세상은 탐험하고 발견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따뜻하고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1988년 4월 24일, 우리 가족은 비행기에서 내려 생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많은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한국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모아 작은 사업체를 인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가게에서 일하시는 동안, 나는 새로운 학교와 문화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많은 한인 부모님들처럼, 우리 부모님도 내가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나는 학업에 몰두했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환점 (비극의 시작)

그러던 1992년, 우리 가족이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안정되어 가던 시기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강도에게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을 잃은 후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나는 어머니를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 역시 깊은 슬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나는 경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지 못했고, 범죄로부터 아버지와 우리 가게를 지켜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분노는 점차 내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은 곧 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인 1993년,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결국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봐!”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조직 가입 의식이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갈 정도였습니다.

상처가 회복된 후, 나는 마치 특별한 힘을 얻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무적의 힘에 속해 있는 것 같았고, 언젠게 사냥에 나설 준비가 된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조직원들과 함께 경쟁 조직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자들을 물건처럼 대했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습니다.

나의 ‘늑대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관심 밖의 존재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배려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조직이었습니다.

학교는 자주 결석했고, 밤거리를 배회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주인 없는 떠돌이 개처럼 집과 거리를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혼란스러운 십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담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하면 내가 속해 있다고 느끼던 공동체를 잃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면 결국 그 잘못에 끌려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용기는 불법적인 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용기는 우리를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고, 불의한 일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1993년의 나는 그러한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범죄 조직에 들어갔고, 유혹을 거절할 용기도,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릴 힘도 없었습니다.

짧고 알았던 삶

열일곱 살이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체포되어 소년원(Juvenile Hall)에 수감되었습니다.

1994년 어느 날 밤, 저는 몇몇 갠단원들과 함께 UC Irvine 캠퍼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함께 갔던 제 친구 한 명이 남자친구와 함께 온 여학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유혹했고, 술에 취하기 시작한 그녀도 점차 제 친구의 관심에 반응하며 장난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그녀의 남자친구는 우리에게 자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런 부탁을 받아들일 만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쇠파이프를 꺼내 남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온몸은 피로 뒤덮였습니다. 심하게 피를 흘리던 그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내 친구는 내가 차를 몰아 자신을 도망치게 해 달라고 했고, 저는 당시 직원으로서 동료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도주를 도왔고,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있던 한 학생이 내 차량 번호판을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은 이미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들은 폭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은 내 팔을 비틀고 여러 차례 거칠게 밀치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내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를 소년원(Juvenile Hall)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첫 수감 생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방에 수용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는 진지하게 새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수감 기간은 너무 짧았고, 변화에 대한 결심 또한 충분히 깊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몇 년 동안 소년원에 있었다라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그런 환경에 오래 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몇 달 만에 나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나는 폭행을 저질렀던 그 조직원이 혹시 내가 자신을 경찰에 밀고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안심했고, 다시 예전의 타락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조직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결국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내가 수감되어 있는 아이언우드 주립교도소(ironwood State Prison)에도 많은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찾아오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족들뿐입니다.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그 갱단원은 스무 살을 갓 넘긴 얼마 후 경쟁 갱단원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관 앞에서 통곡하던 그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규와 눈물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이중 생활(Nether World)

소년원에서 가석방된 후, 저는 한동안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돕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해 학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갱단과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은 그들이 제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여전히 그 타락한 삶의 방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평일의 저는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며 가족 사업을 돕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주말이 되면 저는 타락한 갱스터로 돌변했습니다.
제게 절실히 부족했던 것은 바로 '자제력'과 '의사결정 능력'이었습니다.

자제력 (Self-Control)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이 없다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저는 제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옳은 일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자제력은 단순히 자신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하고, 정의로우며, 가치 있는 것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제력이 없으면 사람은 유혹에 취약해지고,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건 (The Incident)

1995년 9월 14일 밤, 제 인생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린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분노와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자제력 부족으로 인해 저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제가 안겨준 고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기억입니다.

사건 이후 (Aftermath)

사건 이후, 저는 체포되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알던 저의 삶은 갑작스럽게 멈춰 버렸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는 동안, 제가 한 선택들의 결과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선택들, 분노, 교만, 그리고 그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온 모든 길을 말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 후회 (Trial and Regret)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압도적인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이미 벌어진 되돌릴 수 없는 상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제 인생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가졌던 꿈들과 제가 그리던 미래는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의미와 희망을 찾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Searching for Hope)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교만, 쾌락 등 한때 제가 좇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이처럼 깊은 성찰을 하던 시기에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믿거나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Encounter with Christ)

교도소 선교회 목사님의 인도하셨던 도움을 통해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즉 제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법 앞에 유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과 죄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뉘우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변화 (Transformation)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린 후, 저의 관점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집어삼켰던 분노와 증오는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제 고통의 원인이라고 원망했던 이들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교도소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 (A New Life)

교도소에서의 삶은 절망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다른 수용자들을 격려하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서진 과거조차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목적과 믿음, 그리고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찰과 책임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제 삶을 되돌아보며, 제가 내린 선택들과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저는 제 환경이나 과거, 혹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온전히 제 자신의 것이었으며, 그 결정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도 고백합니다. 이는 제 과거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거를 구속(Redeem)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Message to Readers)

제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께, 저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노와 교만,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바른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곁에 두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넘어졌든지 간에 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정 (Continuing Journey)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은 성장하고, 배우며,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비록 교도소 장벽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통해 제 삶의 힘과 목적,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Gratitude)

그동안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제 가족과 교도소 선교회, 그리고 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격려가 저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맺음말 (Closing)

이것은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의 간증이 '그 어떤 삶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서지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면, 새로운 삶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한결같다” — 김석기 목사의 한국 방문기 (2)

“겔 5:5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아주 오래전,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인생의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나를 점검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는 교훈이 되었다.

우리가 어릴 적, 그때만 해도 먹고사는 것이 큰 문제였던 시절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렀다. 보리밥에다 간장을 비벼 먹는 식습관이 흔하던 때였다. 그때 보리밥에 비벼 먹던 간장이 바로 ‘샘표간장’이었다. 기억하기로 그 회사가 한국에서 역사를 이어온 지 어언 80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한 20여 년 전 연말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샘표간장** 회장이라는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 회장님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기억되는데, 공직을 그만두시고 아버지가 세운 샘표간장을 맡아 운영하시던 2대 회장님이셨던 것 같다. 그분은 한국 사회에 기부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에, 기자가 연말을 맞아 이분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다.

교회의 장로님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기자가 여러 가지 사회 기부에 대해 감사하며 그 동기를 묻고 난 뒤, 젊은 기자가 일본의 ‘기코만 간장’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는 기자가 샘표간장이 기코만 간장을 왜 못 따라잡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회장님은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시며 그 젊은 기자에게 되물었다.

“일본의 기코만 간장이 몇 년 된 회사인지 아느냐?”

그리고 다시 물었다.

“샘표간장은 얼마나 된 회사인지 아십니까?”

젊은 기자가 우물쭈물하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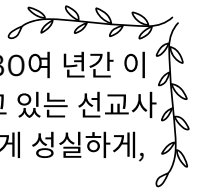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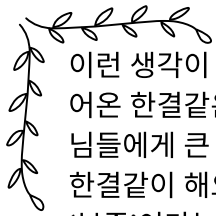
“이보게, 젊은 기자 양반. 기코만은 100년이 넘은 회사일세. 대를 이어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입맛을 만들어 이어온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흐른 시간인 줄 아시오? 그들이 만들고 개발해 온 그 과정들을, 이제 반 세기(혹은 수십 년)밖에 안 된 샘표가 어떻게 쉽게 따라간단 말ियो? 이제까지 이어온 기코만의 간장 맛은 어느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큰일이오. 증조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맛을 변치 않고 이어온 그 맛과 ‘한결같음’은 우리의 교훈이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한결같음’, 그것이 그냥 된 것인 줄 아오?”

그 회장님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그저 경쟁 대상으로만 여기며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무시하는 세대를 향한 꾸짖음으로 들렸다. 세상은 얼마나 빠른가? 스마트폰 하나면 못 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는 물같이 차고 넘친다. 풍요로움도 차고 넘친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왜 가정은 엉망이 되어가고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가? 한결같은 마음을 보기 힘든 세상이다. 동기의 순결함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버렸다.

작년 11월, 나와 아내는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 화곡동의 자그마한 게스트하우스(선교센터 숙소)에 34일간 머물렀다. 그런데 방값이 단돈 30,000원이었다. 세상 말로 조금 낙후된 동네의 5층쯤 되는 건물에 30여 개의 방이 있는 선교센터였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차 방문한 선교사들을 위해 ‘**본죽**’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교센터였다.

자그마한 방에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감사를 드렸다. ‘이런 회사가 있다니...’ 벽에는 자그마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옆 자그마한 사진첩 안에는 “한결같다”라는 그 회사의 표어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조그만 책상 곁 바구니에는 본죽에서 나온 죽과 간식들이 소쿠리에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편안한 쉼이 되기를 바라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34일을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관리자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방은 없는 것이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심지어 에어컨과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방에 들어오면 평안함과 함께 ‘아,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곤 했다. 책상 위 노트 한 권에는 이곳을 지나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교사님이 남긴 감사의 글과 기도문이 적혀 있어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지곤 했다. 정성이 가득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들의 말 없는 성실함과 베풀, 그리고 30여 년간 이어온 한결같은 베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오지에서 오직 사명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몸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말 없는 사역의 본을 보이고 계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부분을 이렇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해오신 것이 아닌가? 사역자들은 이곳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까?

‘본죽’이라는 음식 하나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이 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들은, 화곡동 구석 식당과 술집과 상가로 둘러싸인 곳에 우뚝 서서 다른 세상, 다른 가치, 다른 길,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아침저녁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항상 눈에 들어오는 글귀를 보며 마음을 새롭게 했다.

“한결같은.”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교 단체를 만나며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보여주셨다. 세계 7개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성경 통독을 외치는 **선교 단체(GMS)**를 방문했다. 점심시간이었다.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의도의 한복판이었다. 나도 예전에 세상을 쫓아갈 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기에 더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지금의 여의도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우뚝우뚝 솟은 빌딩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왕래 등 세계의 어느 상업 도시 못지않게 변한 웅장한 여의도였다. 그런데 그 거대한 빌딩 숲에 둘러싸여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화곡동의 그곳과 같은 장소가 있었다. 딱 1시간의 점심시간 동안 주위에 있는 회사원 크리스천들이 모여 성경을 읽는 모임이었다.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곧바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다. 드라마처럼 강조되는 부분과 강약이 조절되며 입체적으로 통독되는데 너무나 은혜로웠다. 30여 명이 점심시간에 모여 긴 탁자 위에 성경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다. 다들 어찌나 멋지고 잘생겨 보였는지 모른다. 우리도 참석한 이유를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그 시간이 끝나고 아주 간단한 도시락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세워진 목적과 사역 등을 설명해 주시는 책임자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에 밀려오는 큰 감격이 있었다. ‘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음에도 패역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에스겔 22: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을 막아서서 일으킬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결국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숨인가? 그리고 이 사역의 창시자가 미국 뉴욕의 한인이라는 것을 듣고 더욱 감격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오직 ‘한 사람’.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나, 또한 한 사람(예수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렀다(롬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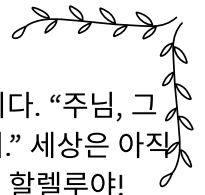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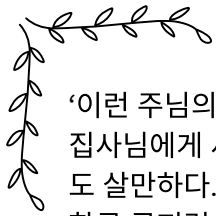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점심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들’을 이 빌딩 숲 가운데 두셨다.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나는 또 한 명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그 여자 집사님은 **방송국 PD**이다.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PD입니다. 그런데 PD는 식모입니다.”

아... 그것이 그분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을 설명하는 말이었다. 그분은 많은 기독교 영화도 만드셨다.

한국에서의 콘퍼런스 일정이 모두 끝나고 34일간의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만남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았다. 그 열정도, 그 태도도 처음과 같았다. 게다가 그 집사님은 한국의 교도소 선교 비전을 이끄는 두 사역자를 어머니 같은 손길로 섬기고 있었다. 한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이었고, 한 목사님은 마약 중독자 출신이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들을 섬기며 온전히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 엄마 같은 손길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 거룩한 허비와 헌신은 실로 위대했다.



‘이런 주님의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것이 나와 아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집사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다. “주님, 그 집사님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헌신들이 귀한 열매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 세상의 허탄함보다, 세상의 무자비함보다, 세상의 무정함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 할렐루야! 한국 콘퍼런스와 만남을 통해 받은 은혜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은 ‘**한결같음**’이다.

또 하나는 ‘**성실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겸손함**’이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이 어둡고 진리가 있으되 힘을 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귀퉁이든, 화려한 빌딩 숲의 한가운데든, 하나님의 ‘식모’들을 두시고 일하시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고 믿는다. 큰 결과보다는 순결한 동기를 귀하게 여기는 한결같은 그 마음들을 축복하신다고 믿는다.

미국으로 돌아와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 기독교 서점을 찾았다. 주인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실감하지 못했던 영적인 현실을 깨달았다.

“목사님, 요즘 책을 읽는 사람이 있나요? LA 하시엔다에 있던 한국 책방들은 모두 문을 닫았어요. 이제 한국 서점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님께 물었다.

“그런데 장로님은 왜 여전히 서점 문을 열고 계세요?”

그 질문에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사명 때문입니다. 제가 팬데믹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들 문을 닫았지만 저는 닫을 수가 없었어요. 꼬박 꼬박 아침 제시간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았지요. 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습시다. ‘다들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위해 책을 구하러 올 때, 모든 서점이 문을 닫고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그래도 ‘거기는 문을 안 닫고 책방이 남아 있다’, ‘여기 책방이 있어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시다. 팬데믹 때 오히려 평상시보다 매상이 30% 이상 올랐습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나 놀랐습시다. 팬데믹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습시다.”

그 책방 주인 장로님의 간증이였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장로님의 마음, 즉 “여기 책방이 있다”라고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열방으로 둘러싸인 곳에 둔다. 너희는 예루살렘이다.’

죄악된 세상, 마비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영원이 있음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4)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 그 위대함을 드러내라 하신다.

또 교도소에 갇혀 있는 한 형제가 생각난다. 그는 셰프(Chef)이다. 많은 재소자의 음식을 준비한다. 많은 형제가 그를 바라본다. 거기서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는 그곳의 예루살렘으로, 빛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멘!

김석기 목사



본죽(Bonjuk)은 한국의 대표적인 죽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본아이에프(Bonif Group) 계열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해외에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친숙하게 통합니다.

- 아플 때 먹는 위로의 음식 (소울 푸드)
- 어르신들을 위한 소화가 잘되는 식사
- 수술이나 질환 후 회복을 돕는 보양식
- 가볍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 메뉴

마약에 관한 진실 -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



1. 마약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과학자들은 중독성 물질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많은 약물이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뇌는 일상적인 기쁨에는 둔감해지고, 점점 더 약물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 과학적 사실: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뇌는 다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뇌 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하며,

이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스스로 회복하는 뇌의 놀라운 잠재력을 뜻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2. 중독은 속박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처음 약물을 시작하지만, 중독은 결국 일종의 노예 상태(속박)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학적 사실: 중독은 뇌의 의사결정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중심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3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1)

3. 마약은 몸을 파괴합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알코올을 비롯한 여러 중독성 물질은 뇌, 심장, 간, 폐, 그리고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 과학적 사실: 장기적인 약물 남용은 심장 질환, 뇌졸중, 간 질환, 각종 감염병 및 조기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4.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는 뇌에 산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할 정도로 호흡을 느리게 만듭니다.

- 과학적 사실: 펜타닐은 효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여,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치명적인 과다복용(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5. 회복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성경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학적 사실: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치유되고 새로운 경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6.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과학적 사실: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 뇌 속의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지닐 때 더 건강한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7. 스트레스는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약물에 대한 갈망을 높이고 자제력을 약화시킵니다.

- 과학적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약물에 다시 손을 대는 재발 위험이 커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8. 긍정적인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회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과학적 사실: 강력한 사회적 지지와 유대감은 장기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17)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9.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수용자가 자신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믿습니다.

- 과학적 사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팻종이가 먹은 횃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요엘 2:25)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10.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 당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내일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과학적 사실: 긍정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뇌의 건강한 신경 경로는 강화되고, 파괴적인 경로는 약화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과학이 증명하는 뇌의 치유 능력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한 번 손상된 뇌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연구 결과는 우리 뇌가 ‘뇌 가소성 (Neuroplasticity)’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독은 판단력, 자제력, 기억력,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약물을 중단하고 건강한 습관을 기를 때 뇌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독서, 배움, 운동,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모두가 이 치유 과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은 뇌가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독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치유와 성장, 그리고 변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변화

성경은 ‘뇌의 치유’나 ‘뇌 가소성’과 같은 현대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갱신, 생각의 변화, 지혜, 그리고 영적인 회복에 대해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변화하고 치유되는 뇌의 능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36)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과 치유,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마지막 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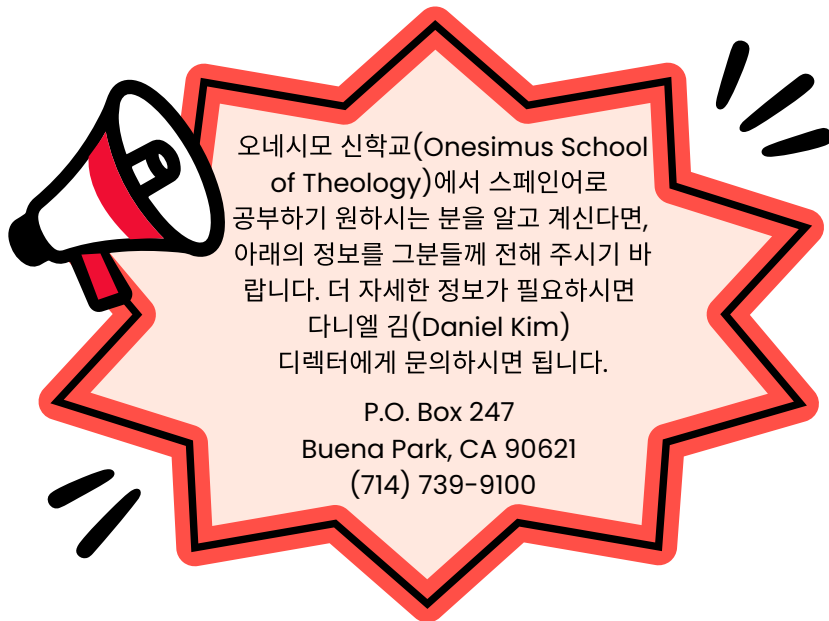
마약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몸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당신을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도, 성경도 당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독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수감 생활은 당신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를, 죄인에게 용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18-19)





오네시모 신학교(Onesimus School of Theology)에서 스페인어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아래의 정보를 그분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니엘 김(Daniel Kim) 디렉터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1
(714) 739-9100



Ministerio Onesimus

En el Ministerio Onesimus, creemos que la Palabra de Dios transforma vidas. Nuestro deseo es guiar a cada estudiante a conocer a Jesucristo personalmente y a crecer en el conocimiento de la Biblia. "Les he escrito estas cosas a ustedes que creen en el nombre del Hijo de Dios, para que sepan que tienen vida eterna."

— 1 Juan 5:13

¡Únete a este camino de fe y descubrimiento!

En el Ministerio Onesimus, cada curso es una oportunidad para crecer en Cristo y experimentar la vida abundante que solo Él puede dar.

Programa de Certificado



Este es un curso de 24 unidades que conduce a un Certificado en Estudios Bíblicos.

- **Requisito previo: Estudio de Introducción "Aseguranza de Salvación"**

1. **Catecismo**

- : Fundamentos esenciales de la fe cristiana y de la doctrina bíblica.

2. **Evangelio de Juan**

- : Conociendo a Jesús, la Luz y la Vida.

3. **Antiguo Testamento I**

(Génesis – Cantar de los Cantares)

- : La historia de la creación, la fe de los patriarcas y la sabiduría de Dios.

4. **Antiguo Testamento II**

(Isaías – Malaquías)

- : Los profetas, la justicia de Dios y la esperanza del Mesías.

5. **Nuevo Testamento I**

(Mateo – 2 Tesalonicenses)

- : La vida de Cristo y las enseñanzas de la iglesia primitiva.

6. **Nuevo Testamento II**

(1 Timoteo – Apocalipsis)

- : Cartas pastorales, esperanza en Cristo y victoria eterna.

7. **Historia Bíblica**

- : Línea de tiempo de los grandes eventos de la Biblia.

8. **Cristianismo Básico**

- : Cómo vivir la fe en la vida diaria.



Escuela de Teología Onesimus

-Desde 2001-